한국무예학회 : 무예연구 2020, 제14권, 제2호(통권 - 제33호), 1 - 21
Korea Society for Martial Arts : Journal of Martial Arts
2020, Vol. 14. No. 2, 1 - 21

최홍희를 통해 본 태권도 태동(胎動)에 대한 연구

양현석*(선문대학교 교수) · 진승태(단국대학교 교수) · 윤정욱(우석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일제강점기를 겪은 민족으로 광복과 함께 민족주의적 사상이 부각되는 정치, 사회 문화적 시대 배경에서 국민들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기르기 위한 필요성을 가지고, 맨손무예에 태권도라는 명칭으로 전통주의적 사고를 접목시켜, 방법론적 무예가 아닌 정형화하고 체계화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태권도라는 보통명사가 붙게 된 것은 최홍희에 의해서이며, 둘째, 각관에서 맨손무예의 틀을 만들고 체계화하여 교육과정들을 만들며 태권도 교본을 출간하였으며, 국제화를 위한 태권도 영문판도 최홍희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한다. 셋째, 최홍희는 다양한 명칭의 맨손무예들을 규합하고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950년 대한공수도협회(大韓空手道協會)가 창립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족기(足技)와 창헌류 5개의 형(태극, 평안, 화랑, 충무, 을지형)을 새로 만들고 기존 형(形)과의 차이를 위해 자유대련과 발기술의 특성을 살려 개발하여 발전시킨다.

주제어 : 태권도, 최홍희, 공수도, 당수도

* yhs1888@naver.com

Ⅰ. 서 론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은 총 28개 경기종목이 개최 되었다. 올림픽 종목들은 길게는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짧게는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채택된 것에 비해 태권도는 1962년 대한체육회 경기 가맹을 시작으로 무예스포츠로 발전하여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까지의 시간은 40년으로 올림픽 경기종목 중 가장 짧은 시간에 정식 경기 종목으로 자리 잡으며, 세계인의 사랑받는 지구촌 무예스포츠가 되었다. 지구촌스포츠로 자리할 수 있는 근간에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태권도 태동에 영향을 준 김운용[1]과 최홍희[2] 이다.

김운용은 1970년대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를 맡으며 태권도 세계화에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서 연구, 홍보가 되어 있는 반면, 최홍희에 대한 시각은 1972년 해외 망명과 더불어 북한에 태권도를 보급한 부분 때문에 군사정권을 지나며 정치적 영향으로 태권도계에서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이후 문민정부를 지나며 국민의 정부시절 햇볕정책과 더불어 일명 북한 태권도에 대한 관심과 교류가 시작되며 최홍희와 국제태권도연맹에 대한 연구가 태권도계에 알려지기 시작한다[3].

---

1) 1931~2017 국제올림픽위원에 부위원장과 세계태권도연맹을 창설하고 대한태권도협회 종신명예회장 국기원원장등을 거치며 태권도를 세계화하고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음.

2) 최홍희(1918~2002)는 1954년에는 당수도 수련관인 오도관을 창설하고 1959년 3월 국군태권도 시범단 창설 1959년 9월 3일 대한태권도협회 초대 회장역임. 1966년 3월 22일 ITF(국제태권도연맹)를 서울에서 창설하였다. 1972년 캐나다로 이주한 이후에도 연맹 총재로 태권도 보급 활동을 지속하다 2002년 6월 북한에서 사망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최홍희 [Choi Hong-hee, 崔泓熙] (태권도 용어정보사전, 2011. 3. 1., 이경명)

3) 시대적 태권도역사에 대한 관심과 함께 ‘태권도와 나 최홍희의 회고록’(최홍희, 1998)과 ‘태권도현대사’(강원식, 이경명, 1999), ‘태권도반세기’(국민체육진흥공단, 2001) 등의 서적을 통하여 알려지기 시작한다.

육군소장 겸 오도관 관장인 최홍희는 사회적으로 당시 군사정권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전통주의 사고와 민족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하여 난립되어 있던 맨손무예들의 명칭과 이론을 정립하고 체계를 잡는데 노력하였다. 당시 이론정립과 체계를 잡아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에 현대의 태권도로 명칭이 정립되고 창명에 따른 이론이 만들어져 난립되어 있는 조직 및 협회의 창립과정까지가 역사적 태권도 태동이라 생각하며, 시대적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최홍희를 중심으로 한 태권도의 태동을 조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기존의 최홍희에 대한 태권도역사[4]연구에서는 사상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동규, 김기홍, 김용규(2004)의 '최홍희와 김운용의 태권도철학과 세계화전략' 연구에서는 두 인물에 대한 태권도철학과 세계화 전략을 심도 있게 연구하였으며, 김영선(2014)의 '최초의 태권도 교본에 관한 연구' 는 최홍희의 태권도교본과 육군사관학교에서 발행한 태권도교본을 가지고 비교 연구하였다. 안영찬(20111)의 '한국 태권도정신의 시대별 변천과정' 은 광복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른 태권도정신의 의미와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이 사회, 문화, 정치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 태권도에 역사적 시작에 대한 전통주의(Traditionalism)적인 관점을 논하기 보다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형성된 관 중심의 맨손무술도장이 한국 무예로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의 무술에서 명칭을 가지고와 사용하여 조직을 형성하고 파생되

4) 맨손무예에 대한 고대로 부터의 전통설과 관련된 글들은 최홍희(1959)의 〈태권도교본〉을 시작으로 1970년대 초기 태권도협회차원에서 기획되고 이종우, 조완묵에 의해 완성되어진 맨손무예에 대한 이론〈계간 태권도 1, 2호1971〉에 나타나 있으며, 이후 1970년대 체육사학계의 나현성, 정찬모(1976) 노희덕(1979)에 의해서 태권도라는 명칭과 관 통합이후 한국 고대 태권도의 사적 고찰' 이라는 이론적배경과 1980년대 체육사적 형식으로 삼국시대의 태권도, 고려시대의 태권도, 조선시대의 태권도와 같은 고대사가 정리되어져 류호평(1981)의 '한국 태권도 발전의 사적 고찰' 이규석(1986)의 '우리나라 태권도 역사에 관한 고찰', 김광성 · 김경지(1988)의 '한국 태권도사' 정창모(1990)의 '고려시대의 체육발달사 연구' 등의 연구들이 실증적 근거자료없이 이론적 체계를 잡으며 발표되었다(양현석, 2006).

어 발전되는 일련의 과정들에서 최홍희의 역할에 대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인 측면으로 분석, 고찰하는데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무예에 대한 명칭정립 및 체계화를 위한 교본제작 및 협회창립과 국제화기틀을 마련하는 일련에 과정들이 역사를 바로 보는 인식과 사회사적측면에서 연구가 수반되지 않으면 편향된 태권도역사 연구가 될 것이며, 태권도 태동에 대한 정립 연구의 혼돈은 정통성 확립에 있어서도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맨손무술에서 태권도 태동에 대한 객관적 사료를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후학들에게 바른 역사를 위한 자료 및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며 체계에 대한 잘못된 정립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Ⅱ. 태권도 태동(胎動)

일제강점기를 겪은 민족으로 광복과 함께 민족주의적 사상이 부각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국민들에게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워야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맨손 무술도장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태권도의 근간이 되는 5대 모체관(母體館)[5]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이들은 맨손무술에 대한 고유명칭이 없다보니 일본에서 배워온 무술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전통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일본무술을 배우지만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만들기 까지 이름이 없다는 뜻에서 斯道(사도: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도나 기예)라는 가칭만을 가지고 맨손무술을 표현[6]하였다.

---

5) 이 점에 대하여 강원식,이경명(1999) <태권도현대사>를 통해서 5개(청도관, 무덕관, YMCA권법부, 송무관, 조선연무관)을 태권도의 모체(母體)관으로 명칭하고 있다.

6) 이와 관련된 내용은 황기(1960)의 <당수도교본, p.27>과 최홍희(1966)의 <태권도교본, 제2장 p.32>에서 개명의 의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으며 다른 관의 관장들보다 명칭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최홍희는 왜 카라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을까?

일제 45년 강점기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녹아 있던 일본문화에 영향으로 맨손무예에 대한 명칭도 청도관은 당수도, 무덕관은 화수도, 수박도, YMCA권법부(창무관), 송무관은 권법, 공수도로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청도관에서 배운 수련생들이 군에 입대하며 파생되어진 오도관의 최홍희는 전통성을 위한 명칭과 기술에 대해 카라테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손보다 세배의 위력을 가진 발의 사용을 권장하며, 발에 대한 표현으로 "기상천외의 묘기는 오히려 발에서 발달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사도의 삼대요소는 첫째, 형 둘째, 대련 셋째, 격파로 체계화하며, 세 가지 기술이 구비되지 않는 것은 완전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전신에서 나오는 위력과 기술로서 이루어져야 무도이며, 상반신(손)에만 치중한 것은 무술에서 위력과 기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하며, 형과 대련과 격파에 중요성 및 차별성을 강조하였다(최홍희, 1966).

또한 '태권' 명칭을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하여서는 그에 저서에 의하면

> 보병 제29사단 창립 일주년 기념식전에 이대통령각하의 참관을 갖게 되었다. 사단은 그의 자랑거리의 하나이며 전통 사도의 묘기로서 오색찬란한 무장을 가일층 이채롭게 하였다. 이 늠늠하고 희망에 가득찬 용사들의 믿음직하고 씩씩한 연무를 보신 대통령각하께서는 "태껸이 좋아! 남북 통일하는데 이것이 필요해"... 본격적인 연구를 거듭한 끝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주면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태권" 두자를 발견하였던 것이다. 이어 이 두자는 1955년 4월 11일 개최된 사도 명칭제정회의에 다른 많은 명칭과 함께 상장 되었든바 태권도로 만장일치 채택되었던 것이다(최홍희, 1966: 33).

이렇듯 최홍희는 1955년 4월 11일 사회각계인사들로 구성된 명칭제정위원회[7]를 구성하여 '태껸'의 음을 취하고 여기에 '도' 자를 붙여 태권도(跆

[7] 이와 관련하여 강원식, 이경명(1999)은 명칭제정위원회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拳道, TAEKWONDO)명칭을 위원회로부터 만들었다(정순천, 2018). 당시 육군 준장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최홍희는 태권도라는 명칭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에 당수, 공수라는 무도명이 같이 거론되었지만 국가의 무도명을 개칭하는 문제는 여러 사학자들과 학계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승만대통령의 제가가 있어야한다고 하며, 명칭 3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1955년 12월31일 완료하기로 한다 (정순천, 2018).

태권도가 창명되기 전까지의 각관에서 사용되던 맨손무술 명칭에 대한 시대적 사회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맨손무예로 처음 도장은 이원국(1907~2003)으로 '당수도 청도관(唐手道 靑濤館)'[8]을 개관하였다. 청도(靑濤)란 문자 그대로 청년의 기상과 활동력을 상징하는 푸른 파도를 의미하였는데, 청도관은 이후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국무관으로 발전하였으며, 서울 서대문에는 이용우의 정도관, 광주 고재천의 청룡관과 청도관에서 맨손무예를 수련하고 군에서 만들어진 오도관이 최홍희에 의해서 파생되었다.

조선연무관(朝鮮硏武館)[9]은 1946년 3월3일 전상섭(1921~?)에 의해서 개관되었는데 일본유학시절 동양척식대학에서 카라테를 배워 서울 강덕관 조선지부 한쪽에 권법부 이름으로 카라테를 지도하였다[10]. 이후 지혜로운 길이란 뜻으로 윤쾌병과 이종우에 의해 지도관(智道館)으로 개칭하여 1968년까지 관을 이끌었다.

(청도관장 손덕성, 미창사장유화청, 연합참모총장 이형근, 국회부위장 조경규,민의원 정대천, 정치신문 사장 한창완,정치신문 주간 장경록, 공익통상부 사장홍순호, 본사주간 고광래, 청도관 사범 현종명)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8) 이와 관련하여 김영선(<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2019>)에 의하면 청도관의 개관일자를 3개의 설로 보고 있는데 그간에 1944년 9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옥천동 영신학교 강당으로 보는 것과 1946년 2월 서울 종로구 시천교당 시작설. 세 번째는 1945년 2월15일 종로 시천교당 시작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관시기보다는 명칭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에 여기서는 국기원에서 주장하는 1944년으로 한다.

9) 조선연무관에 대하여 연구한 김영선(2019)은 1946.3.5. 광주민보 기사를 통해서 개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10) 이호성(1995). 한국무술 미대륙 정복하다. 스포츠조선, p.69

무덕관[11]은 1946년 서울용산역 부근에 '운수부부우회 당수도부'로 황기(1915~2002)에 의해서 개관되었으며, 그는 한국전통무예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수박이라는 명칭으로 카라테와 중국무술과의 차별을 두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1953년 대한당수도협회를 설립하였으며 1955년 서울 중구 동자동 서울역 부근에 무덕관 중앙본관을 신설하고 같은 해 전국에 9개 지관을 신설하였으며, 1960년 대한수박도협회로 개칭하였다(강원식, 이경명, 1999).

서상렬(2002)에 의하면 무덕관 황기관장은 청도관과 조선연무관과의 교류와 철도국 도서관에서 카라테 서적을 공급받아 독학으로 카라테의 기술을 터득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저서에는 중국무술의 기본기인 '세법', '보법', '연법'과 '담퇴12로', '태극권'으로 세법, 보법, 연법과 탐퇴12로, 태극권등의 형이 있으며 그 외 '소림장권'이라는 형이 기재되어 있다, 그는 무덕관의 맨손무술 명칭을 화수도(花手道)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는데 화수도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황기, 1949)

> 화(花)자는 과거의 화랑도의 두자를 채택한 것이니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으로 비추어 보드라도 의미심장한 바가 있음은 재언은 불요하니 (생략) '수 手자는 당수도의 수자를 인용함도 되지마는 수라함은 손을 의마함이요 또 사람을 표현함이요 나아가서은 자격 실력이나 물리학적 표현도 되어 어원, 어감도 대단히 부드러워 넉넉이 사도(斯道)의 대표어로서 채택되어 부끄럼이 없다고 생각된다 (생략) 도 道자인데 이자는 고래로부터 전하야 내려온 마리며 이에 대하야는 현명한 세인이 다 주지하는 사실임으로 다언을 피하는 바이다. 그리하야 삼문자로 합하야 화수도 花手道라 칭하게 된 것이다.[12]

맨손무예를 화수도 라는 명칭으로 교재를 출판하였다가 당시 일반인들에게 맨손무예를 보통명사로 사용하던 '당수' 사용하여 교재를 다시 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황기, 1958).

---

11) 황기의 저서(화수도교본, 1949)를 통해 확인결과 당수,당수도로 명칭을 사용하며 맨손무예를 강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黃琦(1949). 花手道教本 .朝鮮文化教育出版社, p.37~38

> 또한 1960년대 무덕관에서 사용하던 맨손무예를 일반대중은 '당수도'라고 하여야 잘 알아듣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창설 초기인지라 일반적으로 온당한 인식과 보급을 조속하게 하려면 일반이 잘 알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하고 이상적인 명칭을 마련하여 나아갈 방침인 만큼 당수도라는 이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명칭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허인욱(2002)에 의하면 황기는 1956년 『무예도보통지』를 접하게 되면서 '수박도(手博道)'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 그는 2년여에 걸쳐 필사하여 수박도의 이름을 바탕으로 무덕관 화수도에서 '수박도'라는 명칭으로 개칭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다.

YMCA권법부[13]는 조선연무관에서 무도를 가르치던 윤병인[14]에 의해 1946년 서울 종로 기독교 청년회관(YMCA)에서 개관되었다. YMCA권법부는 한국전쟁이 끝나자 이남석, 김순배에 의해서 '창무관'으로 이름을 변경하게 되는데, 창무관의 뜻은 영창고등학교의 창과 무도인의 무자를 합해 만들어진 것이며, 창무관에서 파생되어 1956년 서울 신설동에 강덕원(講德院)을 홍정표, 박철희가 개관한다(강기석, 2001).

송무관(松武館)[15]은 1946년 노병직에 의해 개성에서 시작하였는데 일본유학시절 송도관(松濤館)에서 후나고시 선생 밑에서 카라데를 배웠으며 송무관의 뜻은 송은 소나무의 송(松)의 푸르고 역동적인 의미이며 고려시대 수도인 송도(松都) 그리고 일본 유학생 시절 카라데를 입문한 소도관(쇼토깐)의 송

13)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14) 이에 대해 강원식, 이경명의 <태권도현대사>에서 윤병인은 어린 시절 만주에서 보내면서 중국 무술인 주안파를 익혔으며 해방직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공수도(카라데)를 배워 5단을 인정받았다.

15) 이점에 대해서 노영선은 송무관의 개관이 1946년으로 되어있으나 자유신문 1947.09.18.일자 근거를 제시하며 단기4280(1947.11.16.)을 창립기념일로 제시하고 있다.

(松)에서 내려 온 것이다(강원식, 이경명, 1999).

이와 같이 당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본유학시절 배운 무술을 바탕으로 도장들을 개관하다 보니 공수도(空手道)와 당수도(唐手道)라는 명칭으로 개관하였고 무술을 지도하던 관장들도 비록 해외에서 기본은 배워왔지만 그 안에서 우리 것을 찾기 위한 전통주의 사상을 가지고 한민족 고유의 차별화된 맨손무술를 연구하였는데 기존 맨손무술는 손(手)에만 치중한 명칭이라 생각하여 기존의 무술과의 차별화를 위하여 발기술(足技)을 연구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발전의 당위성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교재 개발과 조직 구성으로 차별화된 우리 것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 우리의 무술을 찾기 위한 노력

교재, 교구라는 것은 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도구로서 맨손무술의 교본을 만들게 된 의미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보다 빨리', '보다 손쉽게'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 얻을 것이다. 무예의 체계의 기본은 교재 제작에서 시작이라 생각되는데 특히 맨손무예가 가지는 특징인 동적인 동작들을 글로서 기록화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맨손무예로서 최초로 간행된 교본은 무덕관 관장 황기(1914~2002)의 『화수도교본 花手道校本,』(조선문화교육출판사, 1949)이다.

첫 교본을 간행 후 황기는 다시 '당수(唐手)'라는 이름으로 『당수도교본(唐手道校本)』 (서울: 계량문화사, 1958)'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수박(手搏)'이라는 전통무예의 명칭을 가지고 와『수박도교본(手搏道校本)』(서울: 삼관출판사, 1970)'를 제작하였으며, 이후 1993년 『무덕관(武德館)』 (도서출판 세연)에서 그의 네 번째 교본을 만들었다. 이렇듯 황기는 태권도에 모체가 되는 5개관 중에서 교재개발과 이름에 대한 우리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두 번째로 간행된 맨손무예서는 ‘권법(拳法)’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된 최석남(1955)의『권법교본(拳法校本)』(동서문화사)이다. 최석남(崔碩男)은 권법에 대하여[16] 가장 적은 힘을 써서 효과적으로 성과를 얻는 무술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권법이 보급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고구려의 각저총 벽화와 경주박물관에 소장된 반부조금강역사탑(半浮彫金剛力士塔)을 사료로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불교에서는 금강역사를 금강권보살(金剛拳菩薩)이라고도 하여, 그가 행사하는 힘의 방법을 금강권이라고 칭하였다(최석남,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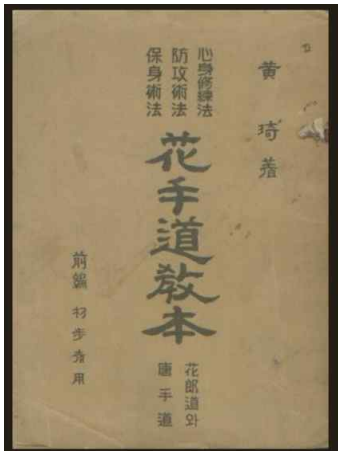


그림 1. 화수도 교본(1949) 출처: http://bookhunt.co.kr/

그림 2. 권법교본(1955) 출처 : https://martial-arts.tistory.com/

이경명(2010)은 권법에 대하여 겨루기(對鍊)를 하기 전에 품새를 완전히 배우고 단련하여 실시하면 충분하지만, 권법에 흥취를 돕기 위해서 겨루기 한

16) 이에 대해 그는 권법의 가치에 대해 경제적인, 체육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신적 측면에서 권법에는 먼저 손을 댄다는 법은 없다, 모든 품새(形)들이 방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권법은 불교와 깊은 결합성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무(無)의 경지는 권법의 묘기에 통한다고도 했다.

다고 하였다. 또한 상대의 실력이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나 침착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라고 권법에 대하여 설명하며, 최남석은 한권의 맨손무술 교본을 제작하기까지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맨손무술의 이름을 권법으로 사용한 이유를 권법의 기원이 우리 고유의 무예사(武藝史)에 유래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세 번째로 만들어진 맨손무술서는 박철희(朴喆熙, 1933~2016)의 『파사권법(破邪拳法)』 (부제목: 공수권법교전(空手拳法教典) 강덕원 유은각)으로 맨손무술 교재이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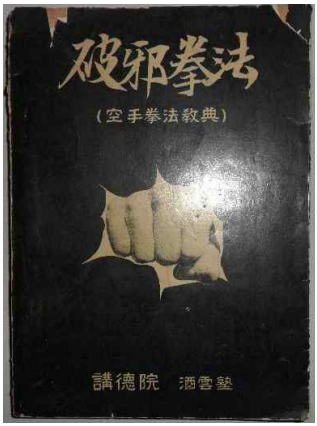


그림 3. 파사권법(1958) 출처: https://blog.naver.com/ssysho/

네 번째로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간행된 교본은 1959년 9월 육군사관학교 109쪽 교재로 편찬되었고(서민학, 2007). 한 달 후 10월25일(단기 4292년)

17) 원래 이 교본은 3부작으로 그 첫 번째 권이 '파사권법'이다. 그리고 2권으로 '활인권법(活人拳法)',3권으로 완인권법(完人拳法)'으로 구성되어있다. 파사는 삿된 것을 깨트리고 바름을 드러낸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에서 따온 것이다. '활인권법'의 활인(活人)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뜻으로 다른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자는 의미이며, '완인권법'의 완인(完人)은 인간을 완성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이 명칭들은 맨손무예 권법, 즉 태권도를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초판 인쇄된 『태권도교본』은 성화문화사에서 출간하였으며 총 338페이지의 교본은 최홍희가 집필하였다.

교재의 구성은 맨손무예의 독자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하여 소림류와 소령류의 일본, 중국무술을 배제한 본인의 아호인 창헌을 가지고 형을 만들어 창헌류'로 구성하였다. 형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름을 살펴보면 천지, 단군, 도산-원효-율곡-중근-퇴계-화랑-충무-관개-포은-계백-유신-충장-을지-삼일-최영-고당-세종-통일 20개의 명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책에서의 주요내용 중 제3장 권도(拳道)의 중요성을 보면 제1강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예로부터 태권의 대가라 일컬어지는 사람은 거개가 선천적인 역사라기보다 어릴 때부터 태권을 수련하여 후천적으로 힘과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제2강 '아무데서나 할 수 있다' 무술을 수련 할 수 없는 장소도 없이 다만 자기들이 주둔하는 고지.' 도의 발상지로서의 기반을 닦아 놓았던 것이다. 제3강 '값진 교구를 필요치 않는다' 태권은 문자 그대로 도수공권(徒手空拳)을 특색으로 하는 무도임으로 형만을 행한다면 도복(道服)도 필요 없다. 제4강 '많은 시간을 요치 않는다' 태권도의 형은 20개 동작으로부터 70개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개 형에 소요되는 시간은 30초에서 2분이면 족하다. 제5강 '개인이나 여럿이서 할 수 있다' 태권은 혼자이건 여럿이건 마음대로 연습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무도이다. 제6강 '한 사범이 많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다' 태권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무도가 아니다. 사범이 혼자서 한 구령 하에 수십 명을 일제히 가르칠 수 있다고 책에는 기술되어 있다. 이렇듯 최홍희는 태권도의 특징을 잘 표현 하였는데 제 1강에서는 호신술로서의 강인함을 강조하였으며, 제 2강에서는 장소에 대한 효율성을 제 3강에서는 용품에 대한 경제성을 제 4강에서는 시간적 효율성을 강조하였으며, 제 5강에서는 개인이나 단체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강조하였으며, 제 6강에서는 한명의 지도자가 여러 명을 지도할 수 있는 대중성을 강조하며 태권도에 차별화된 우수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최홍희는 1965년 태권도가 국제화로 가기 위한 노력으로 책을 저술하

여 태권도에서 영어로 처음으로 출판된 서적이다. 최초의 『영문판 태권도』 태권도교본은 1965년 서울에서 인쇄한 304페이지 분량이며 이 책은 다음해(1966년)육군 태권도부에서 발간한 『태권도교본』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영문판 태권도교본은 이후 국제태권도연맹 I.T.F(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영문판 교본을 한글로 옮겨 제작한 육군 태권도 교범은 1966년 5월 육군에서 제작되었다. 이 책은 육군의 태권도 보급을 위한 교재로서 이 책의 태권도의 형은 소림류와 소령류가 없는 순수 창헌류 오도관 형식의 교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 태권도교본(1959)
출처: 무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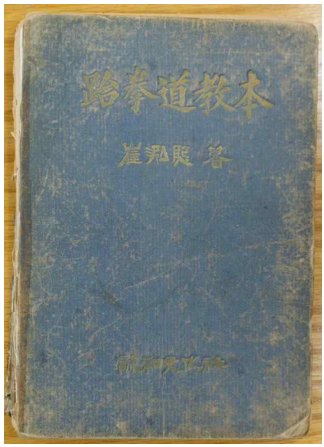


그림 5. 태권도교본(1959)
출처: 무카스

또한 김영선(2004)에 의하면 두 태권도 교재의 내용면에서 기본구성과 형 등은 쇼토칸류 공수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았다. 교재 내용에 단급제도에 대한 태권도는 17개 계급으로 각 개인의 기술과 능력을 평가하는데 8개의 급과 9개의 단이 있는데 급은 8급부터 시작되어 1급까지 올라가며 단은 1단 부터 9단까지로 체계를 잡아 작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심사 내용으로 심사는 급

심사와 단 심사가 있으며, 급 심사는 3개월에 한 번씩 보는데, 소속도장에서 실시하고 단 심사는 협회에서 실시한다. 그런데 3단까지는 격파를 포함한 실기로 심사하고 4단 부터는 기술에 대한 이론이나 연구발표의 능력을 본다.

이후 『태권도지침』, (정연사, 1966년 4월1일)을 발행하였으며, 또한 1969년 11월 15일 『포켓판 태권도지침』을 총 360페이지 분량으로 발행하게 된다.

1966년 24개의 창헌류 형이 완성되었지만 이 책에서는 20개의 청헌류와 소림류, 소령류가 기록된 것은 1966년 이후 1970년까지 대한태권도협회의 요구에 의해 첨부한 것으로 보여진다(https://cafe.naver.com/taekwondo119).

최홍희는 태권도교본(1959)을 시작으로 태권도 영문판(1965), 태권도지침(1966)과 육군태권도 교범(1966)포켓판 태권도 지침(1966)를 제작하고 처음 5개의 창헌류 품새를 화랑, 충무, 을지, 삼일, 충장 등 이름으로 만들어 한자에서 벗어나 형에서 틀로 명칭도 변경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독립된 맨손무예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카라테 형식의 손기술 위주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이 만들어진 형(形)에서 틀로 이름을 변경하고 단급제도, 심사내용 등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6.25 한국전쟁을 치루며 정치적・사회적 ・민족주의적으로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3. 협회 구성 및 심사제도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는 정치적으로 우리고유 맨손무예에 대한 명칭이 만들어지지 않아 각관들은 각자에 수련기술과 방법을 가지고 각관의 이름을 작명하여 사용하였는데 당시 기간도장(모체관)에서 분관(分館)한 신생도장 즉, 오도관, 강덕원, 정도관, 한무관, 국무관, 연무관, 수무관, 창헌관, 문무관 등의 40여 개 신흥관이 파생되었고,(강원식, 이경명, 1999) 대한수박도회, 대한태권도회, 공수도창무관, 공수도송무관, 강덕원무도회, 한무관중앙공수도장 등으로 명칭 되어 지던 각 관들은 손과 발을 사용하는 맨손무술이라는 유사한 점을 가지고 통합된 조직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명칭의 문제가 되어 공수, 당수를 주장하는 측과 태권의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뉘어졌었다(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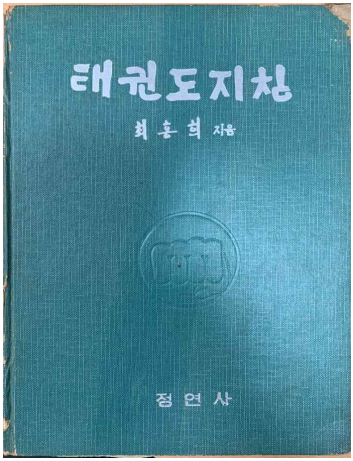


그림 6. 태권도지침 출처: 소장본

국기원, 1971).

당시 시대적인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무예 도장들은 다양한 형태의 무예들을 규합하고 개선하여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서로 다른 명칭의 주장에서 벗어나 1950년 대한공수도협회(大韓空手道協會)가 탄생한다.[18] 노병직, 윤쾌병, 황기, 이종우, 현종명, 조영주, 김인화등에 의해서 협회가 구성되게 되었다. 이때까지도 맨손무술에 대한 공식명칭이 없이 공수도와 권법을 혼용해 부르던 시기였기에 청도관, 무덕관, 송무관이 사용하던 공수도를 협회 명칭으로 사용하였다(강원식, 이경명, 1999). 이러한 조직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무덕관의 황기관장은 중앙심사위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하여, 통합된 대한공수도협회는 무산되게 되었다. 하지만

18) 대한공수도협회는 모체관들의 개관 후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며 거기서 파생된 신흥 맨손무예도장들과 체계와 제도권으로 규합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무예도장특성상 각자 자기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였다면 협회 조직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나은 발전을 위한 선배 무예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의 태권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된다.

협회는 초대 회장으로 이중재를 부회장은 민관식, 이사장은 노병직, 사무국장은 이종우로 구성하여 공인단증을 발급하였으며 제1회 공인승단심사는 1954년 4월 25일 청도관 사천교당에서 개최되었다. 각 관마다 남발되었던 단들을 통일하기 위하여 관장들은 공인 4단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제 3회, 4회 공인 승단심사대회는 이남석이 운영하던 체신부도장(중앙청 옆)에서 개최되었다(강원식, 이경명, 1999). 승단심사는 형(型)[19], 대련(對鍊), 논문(3단 이상)이었으며 대련은 호구를 착용하고 시합을 하는 형태였다. 초단 응심자는 평안오단형(平安五段型) 철마초단형(鐵馬初段型), 내보진초단(內步進初段), 자원형(慈院型), 화랑형(花郞型) 등 이었다(강원식, 이경명,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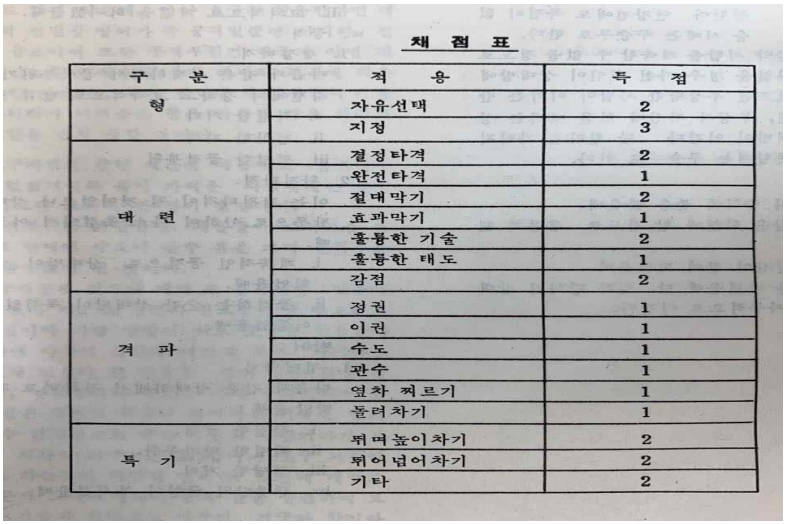
군에서 태권도를 보급하며 육군소장으로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던 최홍희는 청도관과 오도관을 주축으로 태권도회를 조직하고 다시 청도관, 오도관, 송무관, 창무관, 지도관, 무덕관등 6개 대표들을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1959년 9월 3일 대한태권도협회를 창립한다. 대한 태권도협회 초대 회장은 최홍희가 부회장은 노병직,윤쾌병, 이사장에는 황기, 상임이사에는 이종우, 현종명, 고재천, 이영섭, 이사에는 엄운규, 배영기, 정창영 등으로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표 심사위원은 노병직, 윤쾌병, 심사위원은 이남석, 엄운규, 현종명, 정창영 등이 임명되었다.

조직이 구성된 대한태권도협회도 과도기와 발전을 위한 분열로 1960년 4월 말경, 무덕관 황기관장은 문교부에 사단법인 '대한수박도회'를 등록한다(태권도 창간호, 1971년 4월 25쪽). 대한수박도회 이름은 조선시대 전통무예에 대한 전통성을 강조하며 후배를 양성하나 1961년 5.16 군사혁명이후 포고령 6호에 의해 사회단체 재등록이 시행되자 문교부는 유사단체의 통합을 권고하여 1961년 7월12일 대한수박도회, 대한태권도회, 공수도창무관, 소무관, 강덕원 무도회, 한무관 중앙공수도장 등이 소집된다. 회의를 거쳐 태권도의 '태' 자와 '공수도의 ' 수 '자를 합쳐서 태수도(跆手道)로 가결되어 사용하

19) 당시 심사에 사용한 형(型)들은 카라테 기술체계를 답습한 것이었는데 새로 추가된 최홍희의 창헌류의 계백형, 충무형만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였다(강신철, 2010). 이후 1965년 1월 대한태수도협회 제3대 회장으로 최홍희가 취임하여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강원식, 이경명, 1999).

최홍희는 공수도, 당수도와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으로 '태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심사과목으로 자유대련을 중시하는 단급 심사 방식으로 공수도, 당수도와의 차별화 두었으며, 태권도교본(1966)에서는 족기(足技)와 창헌류 5개의 형(태극, 평안, 화랑, 충무, 을지형)을 새로 만들어 기존의 카라데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수도·당수도와의 다른 차이점으로 자유대련과 발기술은 우리 민족적 무술특성을 적용하여 개발과 발전시킨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채 점 표

구 분	적 용	득 점
형	자유선대	2
	지정	3
대 련	결정타격	2
	완전타격	1
	절대막기	2
	효과막기	1
	훌륭한 기술	2
	훌륭한 태도	1
	감점	2
격 파	정권	1
	이권	1
	수도	1
	관수	1
	옆차 찌르기	1
	돌려차기	1
특 기	뛰며높이차기	2
	뛰어넘어차기	2
	기타	2

그림 7. 태권도지침(1966) 채점표 출처: 소장본

Ⅲ. 결 론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일제강점기를 겪은 민족으로 광복과 함께 민족주의적 사상이 부각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국민들에게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 한다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을 가지고 최홍희는 전통주의적 사고에 입각한 민족주의 사상을 태권도에 접목시켰으며, 태권도를 방법론적 무술이 아닌 정형화하고 체계화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명칭이 없는 맨손무술을 사도(斯道)라는 가칭으로 당수도, 화수도, 수박도, 권법, 공수도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최홍희는 당시 정치적으로 대한수박도회, 대한태권도회, 공수도창무관, 공수도송무관, 강덕원무도회, 한무관 중앙공수도장 등으로 명칭 되던 각 관들을 통합된 조직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1961년부터 대한태수도협회로 사용한다. 이후 1965년 1월 최홍희가 회장으로 취임하여, 8월 5일 공식명칭이 대한태수도협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태권도는 맨손무술의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다.

둘째, 최홍희는 전통주의 사고에 입각한 무예의 틀을 만들고 체계화하여 글과 사진으로서 표현하며 교육의 목표와 목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통무예의 기초라 생각하였으며, 기존의 외래문화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형(形)과 단급제도, 심사내용 등을 수정 보완하였는데 내용면에서는 카라테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손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손보다 세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발차기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며, 기상천외의 묘기는 오히려 발에서 발달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차별화를 위한 특징으로 첫째, 형 둘째, 대련 셋째, 격파로 구성하였고, 1959년 10월 25일(단기 4292년) 태권도 이름으로 『태권도교본』을 출간하였으며, 국제화의 초석을 위한 태권도영문판(1965년)도 처음으로 출판 하였다.

셋째, 최홍희는 정치적으로 5개 모체관에서 파생된 다양한 형태의 무술도

장들을 규합하고 개선하여 단일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1950년 대한공수도협회(大韓空手道協會)를 조직 및 구성한다. 또한 단일화를 위한 단증을 발급하고 제1회 공인승단심사를 1954년 4월 25일 청도관 사천교당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후 최홍희는 청도관과 오도관을 주축으로 태권도회를 조직하고 다시 청도관, 오도관, 송무관, 창무관, 지도관, 무덕관등 6개 관장들과 1959년 9월 3일 대한태권도협회를 창립한다. 1960년 4월 말경, 무덕관 황기관장은 문교부에 사단법인 '대한수박도회'를 등록한다. 이후 1965년 1월 대한태수도협회 제3대회장으로 최홍희가 취임하여 1965년 8월 5일 대한태권도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최홍희는 공수도, 당수도와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으로 '태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심사과목으로 자유대련을 중시하는 단급 심사 방식으로 공수도 ·당수도와의 차별화 두었으며, 태권도교본(1966)에서는 족기(足技)와 창헌류 5개의 형(태극, 평안, 화랑, 충무, 을지형)을 새로 만들어 기존의 카라데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수도·당수도와의 다른 차이점으로 자유대련과 발기술을 부각하며 전통주의적 민족적 특성을 살려 개발 및 발전시킨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강기석(2001). **태권도 반세기.**인물과 역사. 서울 :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신철(2010). **태수도와 수박도 분규에 대한 공개서.** 경기 : 자연과 사람들.

강원식, 이경명(1999), **태권도현대사**, 경기 : 보경문화사.

김영선(2014).최초의 태권도 교본에 관한 연구. 국기원태권도연구, 5(2).

김영선(2019). **현대 태권도의 원류, '오대관'의 형성과 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광주민보. 1946년 3월 5일. 朝鮮硏武館, 空手部 新設.

대한태권도협회(1971). **계간 태권도**. 1호.

네이버 블로거. 2018년 7월26일. https://blog.naver.com/fistscholar/

네이버 카폐. 2009년 3월5일. https://cafe.naver.com/taekwondo119/
대동신문. 1946년 1월 13일. 唐手道 道場 開館.
무예보고서. 2019년 10월10일. https://martial-arts.tistory.com/entry/
무카스. 2010년 9월 15일. 이경명칼럼. https://mookas.com/news/10638.
무카스. 2010년 10월 28일. 이경명칼럼. https://mookas.com/news/10804.
박철희(1958). **파사권법.** 서울 : 강덕원.
서민학(2007). **육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태권도사 소고.-** 태권도학 연구. 서울: 상아기획.
서상렬(2002). 무덕관은 통합되어야 한다. 서울:동양비즈니스폼.
서성원(2016). **태권도 역사와 문화의 이해.** 서울 : 도서출판 애니빅.
송형석(2005). **태권도사 강의** 대구 : 이문출판사.
이원국(1969). **태권도교본,** 進修堂.
이호성(1995). **한국무술 미대륙 정복하다.** 서울 : 스포츠조선.
양현석(2006). **광복 후 태권도 세계화의 변천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자유신문. 1946년 1월12일. 唐手道場 靑濤館 新館員을 募集中.
중앙신문. 1946년 1월12일. 唐手道 靑濤館 十五日에 開館.
최석남(1955). **拳法敎本(空手道),** 東西文化史.
최홍희(1959). **태권도교본.** 서울: 성화문화사.
최홍희(1966). **태권도지침.** 서울 정연사.
허인욱(2008). **관(館)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한국학술정보(주).
황기(1958). **당수도교본.** 서울 : 계량문화사.
황기(1949). **화수도교본.** 서울 : 조선문화교육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the beginning of Taekwondo through Choi, Hong-Hee

Yang, Hyun-Suk(SunMoon Univ.) · Chin, Seung-Tae(DanKook Univ)
· Yoon, Jung-Wook(Woosuk Univ)

With the political and socio-cultural background that emphasizes the nationalistic ideology, after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zation, the Korean people realized the need to strengthen their mind and body and, as a result, tried to standardize and systemize material arts by combining bare-hand martial art with the traditional concept of taekwondo. First, it was Honghee Choi who first coined the term taekwondo as a general noun. Second, the taekwondo textbook was published after each taekwondo studio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martial art and systemized the curricula. The English version was also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by Choi in an effort to globalize the martial art. Third, with the idea of integrating and unifying bare-hand martial arts of different names, Choi founded Korea Gongsudo Foundation (daehan gongsudo hyeophoe) in 1950. Also, in terms of the content of the martial art, Choi invented jokgi and five types of changheon (taegeuk, pyeongan, hwarang, chungmu, eulji), and developed the foot techniques in order to differentiate them from the existing types.

Key words: Taekwondo Choi, Hong-Hee, Kongsudo, Dangsudo

논문투고일 : 2020.03.26.
심 사 일 : 2020.04.10.
심사완료일 : 2020.04.30.